

월요광장



정유진
코리아컨설팅 대표

한 입 먹으면 저절로 눈을 감게 되는 음식의 맛이 있다. 광주 금남로 뒷골목에 위치한 한 식당이 그런 곳 중 하나다. 지인의 초대로 매운탕을 맛본 뒤 없어질까 노심초사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이 곳을 가보지 못한 지인과 점심을 하러 간다는 나름의 규칙을 정했다. 그리고 며칠 전 남편에게 전화해 시원한 대구탕을 사주겠다며 불렀다.

나름 음식과 요리법에 해박한 남편은 봄, 여름, 가을의 계절 생선을 나열하며 대구탕은 한겨울에 먹는 것이 더 맛있다고 한바탕 설명했다. 음식이야기가 오고 가다 마침내 명계무침에 대구탕이 나오자 남편이 먼저 말을 끊고 수저부터 들었다. 대구살을 곁들인 국물을 입에 넣는 순간 그가 눈을 감았다. 아마 그도 내가 처음 이 집 대구탕을 먹었던 때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라는 삶을 관통하는 진리.

광주에 이 같이 나이든 점잖은 식당이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여전히 이 곳이 남아있어 다행이지만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를 일이다. 이 집 옆에 있던 기막힌 선지 국밥집만 하더라도 그렇다. 간판이 여전

노포의 맛 그리고 추억

히 있음에도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닫혀진 가게 문을 보니 마음 한 편이 헛헛하다. 분명 이전을 했으면 했다 고 아내가 붙어있을 텐데 아무래도 또 하나의 깊은 손맛을 자랑하던 가게가 사라진 모양이다.

광주에는 특별한 식당들이 많았다. 전일빌딩 뒤 골목길에 위치한 영흥식당이 그 중 하나다. 밑반찬은 물론이고 제철 음식 모두가 개미졌던 식당에는 당시 문화계 인사 및 예술가들이 북적북적 드나들었다. 아쉽게도 이제는 화가 임남진의 2006년 작 '풍속도II-영흥식당'에서나 볼 수 있는 추억의 '광주 레전드' 선술집이 되었다.

진도 출신 화가의 아내가 운영한 대인시장 근처 막걸리집 '월가'는 또 어떤가. 영흥같은 오래된 가게는 아니어도 전라도의 넉넉한 손맛이 훌륭했다. 애호박찌개며 굴전이며 작가들은 그 곳에서 늘 약속도 없이 만났다 헤어지곤 했다. 이들 식당의 공통점을 나열하자면 맛, 지역성, 분위기가 남달랐다. 특히 지역 삶의 역사가 담긴 곳으로 그 곳을 찾는 사람들에게까지 시대적, 문화적 경험이 통하는 곳이다.

비범한 요리 능력을 보여주는 쥐요리사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 영화 '리따뚜이'에 등장하는 냉혹한 음식평론가는 음식을 맛보는 순간 눈물을 흘린다. 그가 한입을 맛보자 어렸을 때 추억을 떠올리며 어머니가 해준 음식의 맛과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느꼈기 때문이다. 한순간 향과 맛의 경험이 당시의 정황과 교차되면서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기억으로 머릿속에 저장된다. 그리고 그러한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음식이다.

후각과 미각의 경험은 한 개인의 경험 기억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프루스트 효과'라 한다. 프랑수아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이름에서 유래한 이 심리학적 용어의 탄생은 시대를 그린 회화라는 극찬을 받은 그의 대하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속 주인공이 어느 날 홍차에 적신 마들렌을 맛보며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는 묘사에서 비롯되었다.

모두 이런 프루스트 효과를 한번쯤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지난해 여름 서울 종로 골목에 위치한 노포에서 냉면을 먹고는 이곳이 처음 온 곳이 아니라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와서 먹었던 냉면집이었음을 기억해냈다. 그리고 시원한 냉면 국물에 호로록 면을 먹으며 그 날의 기억과 무엇보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올라 몽글몽글 감정에 휩싸였다. 노포의 물냉면 한 그릇으로 초등학교 아이와 식사하는 40대 남자의 1982년 여름을 기억하게 된 놀라운 경험이었다.

광주의 구도심이 변화하고 단골집과 노포들이 사라지고 있다. 골목에선 구수한 생선구이 냄새를 더 이상 맡기도 어렵고 식당 주인에게 메뉴에 없는 음식을 부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맛집을 찾고 예약을 하기 위해 스마트기기 사용은 기본이고 식당안에서 비대면을 통한 선주문과 선결제도 일상화되면서 되었다. 커피 제조와 서빙을 위한 AI로봇이 우리 일상에 공존하는 시대에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라는 요리사 박찬일의 글과 함께 내 주변의 노포들을 떠올린다. 과연 이 말이 미래에도 유효할까?

社說

재정 절벽 광주시, 효율적 운영으로 타개해야

광주시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어느 해보다 팍팍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지방세 세수가 줄어든데다 중앙 정부의 교부세 감소에 이어 국비 예산 지원까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방세·교부세·국비 감소라는 이른바 '3중 세수 한파'가 광주시를 재정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

광주시의 올 상반기 지방세 징수 실적은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취특세, 지방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감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4억원이나 감소했고 올 연 말까지 2500여 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내년 정부에서 받게 될 지방교부세도 올해보다 1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재정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배정하는 예산으로 긴축재정에 따라 11.3%나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에서 광

주시만 유독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도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2.8%, 전남은 4.9% 늘었지만 광주시는 3조 1426억원으로 오히려 3.0%인 971억원이 줄었다. 13년만의 마이너스 국비 확보라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광주시는 역대급 재정 절벽 타개를 위해 체납액 징수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체납액은 미미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대규모 지방채 발행도 여의치 않은 탓이다. 따라서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마이너스 국비 확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보충하도록 해야 한다. 경제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정부 부처를 상대로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했는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다.

사망사고 유발 화물차 불법 주차...대책 필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화물차 갱길 주차가 결국 심야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 광주 도심 도로와 주택가 곳곳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들이 보행자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단속 등은 실효성이 없어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31일 새벽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에서 승용차가 반대편에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추돌, 차에 타고 있던 튀르키예인 3명이 모두 숨지는 참사가 일어났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화물차량의 밤샘주차 시에는 차고지나 화물차 휴게소 등 정해진 차고를 이용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 지역 화물차 중 차고지 등록이 완료된 차량은 1만 1680대이지만 실제 화물 차고지는 총 1100면에 불과해 등록 차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고지 대신 도심

도로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 운전자들이 주거하는 곳과 가까운 곳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또 비용 부담을 이유로 지정 차고지 대신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자체에서 매년 불법 주차차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최근 3년간 광주 지역 불법 주차차 단속 건수는 코로나19로 단속보다는 게도 위주로 진행돼 2020년 5932건에서 2022년에는 4062건으로 감소했다.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과징금이 10만원~20만원에 불과해 과징금을 그냥 내고 마는 경우도 많아 실효성이 없다.

화물차 불법 주차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자들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정 등 특정 위험 구간을 선정해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무엇보다 차고지를 곳곳에 더 많이 확보해 유명무실한 차고지 증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無等鼓

극한 폭우와 극한 폭염으로 맹위를 떨치던 여름이 물러가고 조석으로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여름은 어느 해보다 가혹했다. 특히 7월 중순에는 오송 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나 되는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국의 농지 3만여ha도 물에 잠겨 농부들은 자식처럼 키웠던 농작물을 물속에 버려야 했다. 예전에서는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원이 실종돼 주검으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누군가에게 지난 여름은 그렇게 무참하고 아픈 시간이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이별, 상실은 무엇이 비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그럼에도 여름이 물러가는 자리에는 어김없이 가을이 오고 있다. 지난주 수목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프레스데이가 열리는 목포와 진도에 다녀왔다. 전시장에 걸린 아름다운 작품들을 보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오가는 길에 보았던 고하도의 풍경과 우수영의 빠른 물살이 뇌리에 남았다.

"바다에는 가을 빛 저물어/ 찬 기운에 놀란 기러기 떼 높이 나네/ 나라 걱정에 뒤척이는 밤/ 기운 새벽달은 활과 칼을 비추네" 이순신의 대표적인 '한산도 야호곡 의지가 담긴 '장림이 국보가 됐다'는 소식도 오버랩되었다. 칠 지만 이념 논쟁으로 온통 나라가 벌집 쑤신 듯 시끄럽다.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안을 반복하거나 색깔론으로 덧씌우는 일들이 무시로 자행되고 있다. 이순신에게는 오직 애국, 애민 외에는 어떠한 이념도 없었다. 이 계절에 정치권이 생각해야 할 것은 '민생' 외에는 없을 터인데... 가을은 왔지만 가을 같지 않은 것은 비단 필자만의 생각일까. 바야흐로 '추래불사추(秋來不似秋)'의 계절이다. /박성천 문화부장 편집국 부국장skypark@

추래불사추

수필의 향기



박용수
수필가·동진여고 교사

옥수수수 심으면서 멧비둘기와 까치 눈치를 봤다. 근데 뜻밖에 5월 우박이 쏟아져서 다시 심어야 했다.

모내기는 이양기로 한다. 드론으로 농약하고 트랙터로 베어, 수매하면 88번 손이 간다는 쌀(米)은 상형 문자간만 벼농사는 순식간에 끝난다. 예전 어느 날, 눈두렁에 앉아 벼 모까지 하나를 뽑아서 나락이 몇 개 달렸는지 무심코 헤아린 적이 있다. 대략 10분 정도 걸렸다. 옥수수도 세어보았다. 알곡이 가지런해서 보통 15분 정도 걸리는데 수확을 좀 아는 사람이면 훨씬 빨리 셀 수 있다.

촌사람이라면 감나무에 열린 감이 몇 개인지 헤아려본 일이 있을 것이다. 무료해서 또는 무심코, 지붕 위 박이나 호박을 세고, 대추나무 대추까지 세기도 한다.

참깨는 좀 시간이 걸린다. 참깨를 세다가 성질 버린 줄 알았다. 그간 할 일이 아니었다. 솟자를 떠나서 그냥 셀 수 없는 일이었다. 꼬투리 하나 헤아리는 것조차 쉽

참깨 한 알의 무게

지 않았다. 난 저울을 무릎 가까이 가져왔다. 무게가 궁금했다. 찻다 그 과학 시대다. 우리는 경제하면 반도체나 자동차 기계 등 공산품을 떠올린다. 현재와 미래 세대의 중요한 먹거리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 자동차나 선박, 아파트를 진짜 먹지 않는다.

흔히 의식주 문화를 우리 삶의 척도로 친다. 과학의 발달로 옷은 목화가 아니어도 만들고, 집은 나무 없이도 지을 수 있다. 빵과 소시지도 공장에서 찍어낸다. 하지만 그 먹거리 바탕은 지배하고 있는 생명이어야만 한다. 쌀이나 밀, 소나 돼지갈이 말이다.

밭가벗고 살거나 하늘을 보고 잘 수는 있지만 우리 당장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그런데도 특이하게 먹거리만은 외면하고 있다. 유독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인데도 비싸다고 주머니를 여는 데 인색하다.

수심만 원의 웃을 입고 수억 원의 값에 살면서 유독 참깨 한 알의 가치에 대해서는 구두쇠가 되고 판청을 부린다. 좀 우습다. 다들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농민이었을 텐데도 말이다.

주말에 시골집에 가다가 길을 멈췄다. 지난주 화순읍 삼천리에서 논공 갈아엎기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농사만 짓던 순채디순한 이웃 어른들이 아마도 피를 두르고 있었다. 쌀 과일 생선을 줄인다고 벼 대신 전량 작물을 권장해서 눈에 콩을 심었다.

고향 어른들의 생활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농촌은 비어가고 있다. 게다가 기후 변화로 농사는 더욱 힘들어졌다.

논공은 잦은 비로 말라비틀어져 대부분 고사했다. 쭈글쭈글한 콩이나 이웃집 아저씨의 얼굴이나 거기서 거기였다.

아저씨는 그나마 읍내 사람들을 에타게 붙잡으며 하소연한다. 그들은 밤급 참깨가 든 김치를 먹고 콩으로 만든 된장국을 맛있게 먹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쫄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집에서 밥 한 공기 먹고서, 식당처럼 어머니께 천원, 이천 원 계산하는 사람은 없다. 참깨나 콩의 무게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시인은 대추 한 알에 천둥 번개 수백 개가 들어있다고 노래한다. 그 예만한 시인조차 농민들의 땅과 눈물은 헤아리지 못한다.

세상은 늘 시끄럽다. 여기저기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친다. 그들이 살겠다고 외친다.

"사용자들이여, 위장자들이여 장사꾼들이여! 노동자 한 명 한 명을 기계로 보지 말고, 백성 한 명 한 명을 표로 보지 말고, 길거리 주민 한 명 한 명을 주머니 속 돈으로 보지 말고"고 난 그들 등에 대고 속삭이고 싶다. "당신들도 참깨 한 알, 농민의 눈물 한 방울, 그 가치를 저울의 무게로만 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기 고

인재가 힘이다

목을 잡지 않을꺼하는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지난 광복절 관심을 끌었던 짧은 뉴스 하나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0.6%로 일본의 1.5%에 뒤졌다는 것이었다. 일본도 심각한 저출산 고령사회인데 우리가 다시 경제성장을 면에서 일본에 밀린다는 게 이해되는가.

인구 성장에 기반한 경제성장론은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물이다. 공장형 대량생산 시스템에 기반한 규모의 경제 구조에서는 인구가 생산과 소비를 창출하는 1차적 중요 요인이지만 지금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이 중요하다. 반도체 기술이 미국 대통령을 한국의 삼성공장으로 불러오고 한국 대통령을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하게 한다. 미국과 중국을 보면 이미 세계는 기술전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기술전쟁은 누가 먼저 기술을 개발하느냐의 속도전이다. 먼저 기술을 확보한 자가 향후 기술의 표준화 권한을 갖고 후발 주자들에게 빗장을 걸어 잠그며 사다리 걸쳐차기에 나선다. 전쟁은 승패가 분명한 생존게임이기 때문에 먼저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승리의 요인이다.

기술전쟁은 바로 인재전쟁으로 이어진다. 인구 수에 대한 집착보다 수백만 명을 먹여살릴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우리는 이미 스티브 잡스나 베이스즈, 빌 게이츠 등이 바꾸어 놓은 세상에서 그들의 플랫폼 기술이 수백만 명의 인구를 대신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초전도체 기술은 일장춘몽으로 끝날듯하지만 잠시나마 전 세계가 그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경제효과에 긴장하기도 했

다. 기술은 그것을 개발해 내는 인재에게 달려있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안착하느냐도 기술을 가진 인재 확보에 달려있다. 축자는 한국인의 상상력과 도전의식이 창조력으로 이어지면 일본의 치밀함과 신중함을 넘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전쟁에 더 적합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표명하기도 한다.

그 인재는 어디서 누가 키우는가. 1차적으로 교육이 많고 크기는 우리 사회가 키운다. 대학 하나가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기술을 개발하면서 그 주변에 산업이 모이고 지역이 성장하는 구도를 우리는 이미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보아왔다. 인재의 요람이 되어야 하는 지역 대학이 위기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혁신의 기회는 제재에 묶여있다. 정부는 반도체가 중요하니 반도체학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반도체학과와 정원을 교육부에서 틀어쥐고 지역의 반도체 인재 양성은 가로막고 있다. 2025년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추진한다면 시범 선정된 지역에는 부산 대구 경북 경남, 그리고 호남에서는 전북과 전남만 포함되었다.

필자가 제안하여 입안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 특별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적극 추진해왔는데 무엇보다 인재 양성에 있어서도 지역 균형발전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인재전쟁의 시대 인재 양성은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국가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역시 전면에 나서야 함을 의미한다. 진정한 교육 개혁의 방향은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고 원하면 누구든지, 어디 서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박혜자
전 국회의원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저출산 고령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이다. 경제는 기본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주축이 되는데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면 이로 인해 경제성장도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 중국도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세계 최대의 인구가 값싼 노동력으로 대량 생산을 받쳐주고 또 거대한 구매력으로 소비를 촉진해 줌으로써 가능했다.

그래서 인구는 경제성장과 정(正)의 관계를 갖는다고 여겨왔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하여 대통령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있고 지금까지 저출산 극복에 280조 원 밖에 쏟아 부었다. 여기에 고령화로 인한 지출 비용을 더한다면 가히 천문학적인 비용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계 최저의 출산율은 조금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도리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고령화율은 저출산이 해결되어야 완화되는 문제인 만큼 해법도 마땅치 않다.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성장의 발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